

연장보육 실시 · 청년저축계좌 신설... “실용적 정책 발굴할 것”

■ 충북 2020년 달라지는 제도 · 시책

충북도는 새해를 맞아 도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 시책'을 발표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 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9개 분야 65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여권부터 위변조 방지 강화 디자인이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청년근로자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로 유도를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정부지원 형이 추가되어 기업 부담이 반으로 줄고(20→10만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새롭게 선보인다.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GPS위치 표시장비가 지원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대상이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기초생활수급보장사업은 대상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대상이 기존 만6개월~12세, 만65세 이상, 임신부에서 중학교 1학년생이 추가된다.

경제 · 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10.9%)되고, 상시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농정 · 산림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대상이 '산모'에서 '임산부'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18만원에서 48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여성농업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 · 체육 분야에서는, 문화 소외 계층에게 문화 · 여행 ·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11개 시 · 군 주요사업으로

먼저 청주시는 임신부 · 장애인 · 노약자가 우선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행복배려 민원처리 창구가 운영된다. 아동을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 다양한 문화체험 공연을 여는 등 아동보

육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이외 기초연금 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 지방세 야간 세무 민원실 운영 등 모두 18개 분야가 새롭게 바뀐다.

충주시는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출산장려시책이 강화되며,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지원 사업별이다.

또한,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 ·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구강보건센터 운영 확대 및 서충주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운영 등 12개 분야가 신설 · 변경된다.

제천시도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보은군은 보은군민장학회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을 이용해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명당 32만 원의 해외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역상품권 10만 원이 지원된다.

옥천군은 대안교육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식당 3천 원, 180회까지 급식비를 지원한다. 인구늘리기 우수시책 지원 사업,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및 교류협력 추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결혼정착금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연령 완화, 출산축하금 지급기준 확대, 7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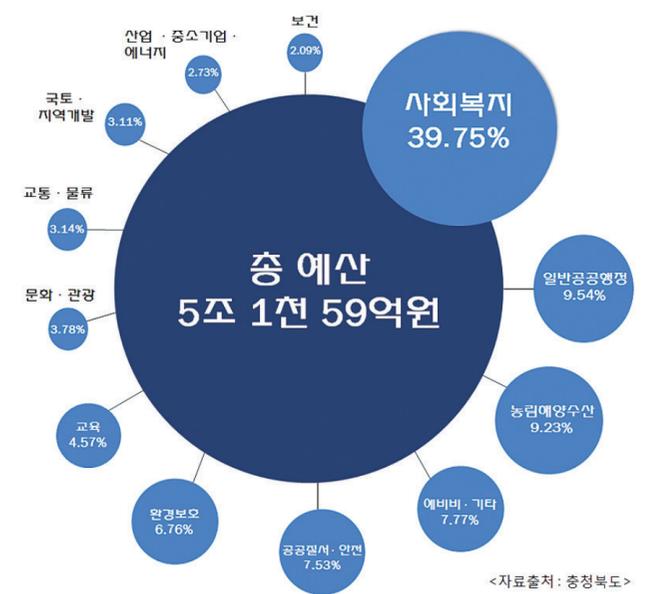
노인 농어촌 버스 무료이용,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영동군은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경로당 지키미 사업을 통해 읍면분회장에 지원되는 활동비가 늘어난다. 초 · 중 · 고 입학축하금 지원, 장애인단비 지원, 향토 장학금 확대 지원,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등 혜택도 많아진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현역복무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자 상해보험 사업을 진행한다.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증평군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냉 ·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가 변경된다.

진천군은 생거진천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신설해 만 65세 이상 병원(시설) 퇴원자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내외자를 대상으로 안전순찰이 등 시설 설치 · 거점돌봄센터 중심 방문 진료 등 보건 · 의료 · 주거 · 복지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액이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다.

괴산군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전입 시 혜택이 늘어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보훈수당도 기존보다 3만 원 증액된다. 음성군은 2020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음성사랑상품권 '음성행복페이'를 발행한다.



충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시책 9개 분야 65개 제도를 발표했다.

단양군은 2020년 3월부터 혼자 사는 부모와 연력이 안 될 때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단양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편 도는 2020년도 당초예산안으로 5조1천59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서 의결, 확정되었으며, 정부예산으로는 6조854억원을 확보하여 '정부예산 6조원 시대'를 열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충북’ 만든다

1차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저출생 · 고령화 4대 전략 추진

사업비 1조 6934억원 투입... 기초연금 · 치매 관련 사업 중점

충북도는 8일 저출생 및 고령인구 증가에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점까지 더해짐에 따라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2020년 제1차 충북도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4대 전략, 10대 과제로 구성된 '2020년 충북도 인구정책 종합 추진 계획' 심의가 진행됐다.

4대 전략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삶의 질 향상,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성장, 재생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비이다.

기존의 저출생 대책만을 뜻하던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급변하는 인구 구조 관련 모든 사항을 뜻하는 '인구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위원 수도 기존 9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20명(관계부서 실 · 국장 등 당연직 8명,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유족직 12명)으로 확대 구성

했다.

사업비는 총 1조 6934억원(국비 9960억, 도비 2936억, 시군 3752억, 민자 · 자부담 276억)이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 출산을 제고를 위한 '결혼 · 출산 · 양육 친화환경 조성', 보육부담 경감과 고령사회 가속화 대응을 위한 '기초연금 · 소득보장 및 돌봄 · 치매 관련 사업 방안'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도청 관계자는 "예전부터 진행해 왔던 출산, 보육, 고령자 복지를 넘어서며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교통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보다 실질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모든 세대가 다함께 행복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올해 공공보건의료 전담팀 신설

지역 간 의료수준 격차 해소 · 도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충북도는 도민 누구나 차별 없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 2020년 1월 1일자로 보건정책과 내 공공의료팀을 신설했다.

이전 공공의료팀 신설은 도민들의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충북도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도는 공공의료팀 신설로 현재까지 분산되어 추진해오던 공공의료 업무를 통합하여 정책 환경 변화에 맞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작년 7월(19. 7.) 전국 최초로 공공보건의료 중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충북의 현황분석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2020~2024년)을 수립하였다.

신설된 공공의료팀에서는 마스터 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청주 · 충주의료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139억을 2020년 예산에 편성하여 청주의료원

응급 · 환자치료 및 검진센터 증축, 충주의료원 재활 · 호스피스 병동 증축,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필수요리를 연계 ·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북대학교 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 의료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료 인력 양성 ·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정책학도를 운영하여 지역에서 양성된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충북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대학병원 의료 인력이 지방의료원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공공의료팀 신설로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 · 스프링제본
칼라복사 · 칼라출력
대형코팅 · 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진천군 '케어안심주택' 1호 탄생

고위험 노인에 주거·기초생활·의료 등 '통합 돌봄' 제공

진천군은 지난해 12월 27일 진천읍 읍내리 일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케어안심주택 1호 입주식을 개최했다.

'케어안심주택'은 군유재산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고위험 노인가구, 병원 퇴원 어르신에게 주거·의료·돌봄·기초생활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품격 주택 모델이다.

진천군 케어안심주택 1호 입주자는 지난 10월 폐렴과 영양실조로 병원 입원 후 의학적 치료는 종료됐지만 열악한 주거와 식사 문제로 퇴원하지 못하고 병원에 머무르던 지역 어르신으로 의료급

여 사례관리사의 발품을 통해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받게 됐다. 안심주택은 치료만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갈 집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 등에서 장기 입원 중인 사회적 임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요 4대 영역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거안정(케어안심주택 지원, 맞춤형 집수리 등), 생활-돌봄(IoT 스마트 돌봄 시스템, 비상벨, 영양도시락 지원, 가사지원 등), 보건-의료(방문간호, 치매검사, 건강검진 등)이며 지역사회 병-의원, 기관-봉사단체가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천읍 읍내리 일원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케어안심주택 1호 입주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식에 참석한 송기섭 진천군수는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리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케어안심주택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아낌있게 추진 중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성

공적으로 추진해 지역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생계진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류창현)에서는 안심주택에 입주한 어르신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용품 일체를 후원했다.

음성군, 충북 최초 '외국인지원센터' 들어선다

3월 개소 목표... 한국어 교육·통번역 지원 등 제공

음성군이 충북 도내 최초로 외국인 주민의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하는 외국인지원센터가 3월 개소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외국인지원센터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사)글로벌투게더음성을 최종 수탁자로 결정하고 16일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음성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많다.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인구는 9432명으로 전체인구 10만 4446명의 10%에 육박한다.

또 약 2600여 개의 기업체가 가동 중이고 31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추진·계획 중인 명실상부한 경제도시로 급부상하

고 있지만 해마다 노령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비율 감소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결혼이민자 수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언어 소통,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있다.

군은 정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예방과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2017년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외국

인지원센터 설립을 응모해 선정됐다. 외국인지원센터는 급양을 무극리 80-7번지 일원에 사업비 26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984㎡(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그동안 외국인 지원사업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3월 외국인지원센터가 개소되면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외국인 지원시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지원센터는 교육장, 다목적실, 복합계, 체육단련실, 사무실, 동아리실 등으로 구성해 외국인 주민의 적응 촉진을 위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지원, 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법률상담 지원, 의료지원 등 외국인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외국인지원센터의 신규 건립을 통해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의 적응능력 제고는 물론,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내·외국인 사이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합의 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군 여성가족과 신설 '성공적'

56억 국도비 확보... 여성·어린이 지원 시책 추진

진천군이 영유아부터 청소년, 여성, 가족의 복지증진과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과를 신설 운영한 결과 성공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가족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책 발굴에 앞장섰다.

56억7천여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충북혁신도시 청소년두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덕산을 두촌리 일원에 지상2층, 998.04㎡ 규모로 건립을 추진해 내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 충북혁신도시 청소년시설인 덕산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들어서는 청소년두드림센터는 행안부에서 공모한 공간통합 시설 공유형 협력사업에 선정돼 조성 중인 청소년 전용 창의활동 공간으로 내년 말 완공한다.

인접 자치단체인 음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결실로 중부4군(진천 음성 괴산 증평)이 함께 추진 중인 광역차원의 '공유도시 협력사업'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추가로 설립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하고 지난 5월부터 충북도내 최초로 어린이집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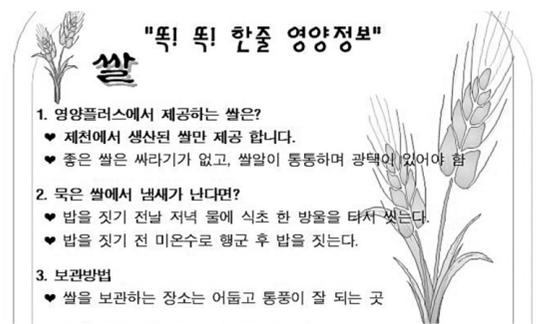
니는 만3~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했다.

여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찰서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도내 최초로 여성안심부스(판내 5개소), 공중화장실 IoT비상벨치(23개소 29개), 안심스크린(5개소 13개) 등을 설치하고 지역 여성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기청소년 발굴, 보호, 학업지원까지 풀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천시보건소 "유용한 영양정보 확인해보세요"

'영양플러스' 참여자 대상 '한줄 영양정보' 문자 서비스



영양정보 문자 사진.

제천시보건소가 올해 매주 월요일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임신부 및 영유아 부모(연 1천440여명)에게 쉽게 영양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똑 한줄 영양정보' 문자 서비스

를 시행한다. 시 보건소는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제공하는 보충영양식품을 소제로 영양소, 보관방법, 이용법 등의 영양 정보를 주1회 SMS 문자로 발송한다. 특히 매월 마지막 시 보건소는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제공하는 보충영양식품을 소제로 영양소, 보관방법, 이용법 등의 영양 정보를 주1회 SMS 문자로 발송한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쿠키에 선착순 응답한 우수 참여자 5명을 선정해 영양교육 용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보충 영양식품의 영양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제천시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신·출산·수유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하고 맞춤형 영양상담과 교육으로 대상자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균형 있는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보건소 유현숙 영양사는 "영양정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보충영양관리실(641-3197, 3112)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군 내달 '이웃돌봄 안심콜' 시동

단양군이 오는 2월부터 이웃돌봄 단양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콜(call) 서비스를 말한다. 안심콜 번호는 '이 일이 사랑' ☎ 043-420-2124이다.

단양군은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세대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이웃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단양안심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준비

를 이어왔다. 단양안심콜 서비스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담인력을 두고 연중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이용료는 무료다. 안심콜 신청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거주중인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추후 안부 확인요청 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7명과 사회복지명예공무원 414명 등 지역 활동가들이 안부를 확인해 결과를 전달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하여 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청주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가경동 가경 주공 6단지아파트에서 청주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김은숙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장, 구본학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경주공6단지아파

트 관계자 및 이용 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다함께돌봄센터 추진경과 보고, 기념사, 감사패 수여, 축사, 간판제막,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가경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정원이 20명으로 소수에 상관이 없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생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충주시 범죄 취약지역 CCTV 강화

17억원 투입... 140여대 신규 설치

충주시가 범죄예방과 안전도시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범죄취약지역 143개소에 213대의 방법 CCTV를 설치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교체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우범지역 70개

소에 140여대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의 저화질 노후 카메라를 신형으로 교체해 선명하고 화질의 영상을 확보해 범죄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설치될 CCTV 카메라의 성능을 비교평가해 동급최고 품질의 장비를 선정할 후 지난 12월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설치대상지를 미리 점검해 상반기

중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방법 CCTV 확대설치와 노후카메라 교체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충주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CCTV통합관리센터는 2012년 개소해 현재 경찰관 1명과 모니터링원 20명이 714개소 CCTV 1260대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며 충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교무겸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12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개롱센터, CJ수원반포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통(중평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과(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파이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쟁물라이스, 첨앗식품, 리온엘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주어탕, 좋은아침, (주)계이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육두유사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허 청주대점
- 청주시라니누리푸드뱅크 참조은유통, 델리스(분평동), 백설유통, 홀몰러

- 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뜨(개신점), 파리바게뜨(북대점), 바우어,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통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롤링핀(지웰시티점), 이츠굿베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뜨(가경대우), 정도나츠, 바로구운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버식품, 자연솔푸드, 푸드클로리, 한솔, 비전상사, 태성우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유통, 장수유통,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과(주)
-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뜨(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올랑칸타빌점, 올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농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등, 용암서문우등,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대현베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레주르 율랑점
- 청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뜨쌍용점, 두레주르한라점, 두레주르산단단지점, 기문송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정출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찰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정자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공천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따베오 베이커리, 행복8떡집, 유신떡방,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안역일점, 영농조합법인 희어울, 홀프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안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회(후생사), (주)월드이십일메이치규, 자연연합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떡, 서울우유치즈, 시아스유통, 두레주르 분평점, 목향청과, 금관할인마트 율랑점, 청주특남(주), 무외에뚜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중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중평점, 케이하우스, 금호숯불갈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랑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킨도너츠 중평점, 델리퀸 중평점, 그린유통, GS25 중평대로점
- 과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과산잡곡, 신선나도,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베오베이커리, 두레주르과산점, 파리바게뜨과산점, 매키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식회사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강, 조마루 갑지탕,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천담토리타리점, (주)한일푸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주르(김홍옥), (주)벤유평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유(보은점), (주)서울농,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양), (주)이가지연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뜨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편백, 김수혁, 델리퀸(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혜식품, 명기떡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 명가떡집, 생가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물식품, 대우유통, 델리퀸충주교현점, 떡보

- 의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와유통, 삼일상회, 서울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육사정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엔프랜차이즈,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이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리케,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유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이리엔, 365할인마트, 크리스크립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S(누드), 음성CJ, 음성(주)진천,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풍, 단양두순식품, 서울유업 단양대리점, 파리바게뜨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섀디푸드, 대상청정원

영동군 평전리 문화복지센터 준공

증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 해소 '온 힘'

창조적 마을만들기 일환... 소통·참여공간 활용 다목적 광장도 함께 조성... 주민복지 향상 기대

영동군 매곡면 평전리 마을에도 문화복지센터가 생겼다. 면에 따르면 최근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전리 문화복지센터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번에 준공된 문화복지센터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지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필요성에 의해 탄생됐다. 대지 1천203㎡, 건축면적 108

㎡ 지상 1층 건물로 신축됐으며, 주민의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 사업으로 평밭과 안녕마을 2개소에 지난해 1월에 착공해 1년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다목적 광장도 함께 조성됐다.

김준명 이장은 "마을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본 사업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기 좋은 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동군 매곡면 평전리 문화복지센터가 준공돼 박세복 군수, 박우영 도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복지사업 '밝음'·봉사활동 등 활발한 활동 이어가

증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협의체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모은 후원금 450만 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밝음' 등 각종 복지 사업을 펼쳤다.

'밝음'은 각 마을을 돌며 미세먼지 마스크 1000개와 휴대용 구급함 200개를 나누고 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집을

구하지 못해 긴급상황에 놓인 이웃에게는 월세보증금 1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 12월 23일에는 위원들 스스로 협조를 통해 증평읍 남하2리 경로당에 보행보조기와 미끄럼 방지 매트, 식기살균기, 싱크대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환경을 정화하고 침대를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기업 민간위원장은 "증평 주민을 위해 내년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옥 공공위원장(증평읍장)은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주민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체다.

옥천행복교육지구-돌봄형 마을학교 '맞손'

군북면 향수돌봄복돌봄공동체 등 5곳과 업무협약 체결



옥천행복교육지구는 20일 돌봄형 마을학교 5개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옥천행복교육지구는 올해 첫 소를 선정하고 20일 업무협약 사업으로 돌봄형 마을학교 5개 (MOU)을 맺었다.

대상은 옥천읍 2개소(고사산청년회, 쫄노는아이들), 동이면 1개소(동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운영위원회), 군북면 1개소(향수돌봄복돌봄공동체), 군서면 1개소(장령공동돌봄)이다.

김일환 옥천교육장을 비롯하여 옥천군 평생학습원 정지승 원장, 고사산 청년회 영진중 대표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참여 의지를 다졌다.

옥천읍에서 열리는 돌봄형 마을학교는 삼양초등학교와 죽향초등학교 학구 각 1실이며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순위에서 밀려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운영된다.

면단위 돌봄형 마을학교는 초

등학교 돌봄교실과 병행 운영되며 방과후와 주말까지 학부모가 공동으로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3개소, 안남배바우도서관 등을 포함해 9개 읍면 모두에 균형있는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어 돌봄 사업을 통해 군과 교육지원청은 아이키우기 좋은 옥천을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옥천 동이면에서 마을돌봄지원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온 마을에 들리도록 열심히 운영해 보겠다"며 포부를 말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총괄하는 조계숙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옥천행복교육지구는 국정 과제인 온종일돌봄과 마을방과후를 만들어가는 마중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규모 사업장 100곳에 안심비상벨 설치

보은군은 여성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66㎡ 미만) 100곳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

최근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폭력이나 각종 위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안심비상벨을 설치한 사업장은 음식점이 41곳으로 가장 많고, 미용실 20곳, 슈퍼마켓 10곳, 의류점 8곳, 화장품 가게 5곳, 기타 16 곳이다.

군이 자체예산을 투입해 설치

한 안심비상벨을 누르면 사업장 정보와 비상사태 표시가 충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달된다.

경찰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할 수 있어 발 빠른 범죄대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운영 효과를 보고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괴산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인 '다가온(ON)' 개소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옥천군, 3월부터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공짜

옥천군은 오는 3월부터 지역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무료 이용 카드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옥천

군 면허업체 농어촌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지난해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고, 대상자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속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군의 70세 이상 무료이용 카드 발급 대상은 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증평군, 송산리 복합커뮤니티에 청소년 시설 건립

증평군이 증평읍 송산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에 53억 원을 들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증평군 청소년문화의 집은 현재 실시시설계약 중이며, 올 3월 착공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면적 168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하 1층에는 창고·기계실, 지상 1층에는 사무실·보존서고·강당이 들어선다.

또 지상 2층에는 영상스튜디오

·노래연습장·밴드연습실·동아리실, 지상 3층에는 맨션연습실, 영화감상실 등이 갖춰져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를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꾸민다.

증평군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증평군립도서관, 김득신 문학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남녀노소 모두의 교육·문화 수요를 한 자리에서 충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이 일대 1만6천여㎡의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를 5년 간 109억 원을 들여 분할 매입했다.

2018년에는 관련 부서간 '문화시설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업협정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괴산군 다문화 소통공간 '다가온' 문 활짝

다문화가정 자녀 성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시행 예정

괴산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석수, 이하 센터)는 지난해 12월 23일 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인 '다가온(ON)'을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은 이차영 괴산군수, 신동은 괴산군의회 의장 및 의원, 윤남진 도의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센터 이용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

온(ON)' 제막식에 이어 시설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센터에 따르면 '다가온(ON)'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육아정보를 교류하고, 자녀성장 집중지원 및 다문화가족과 일반주민과의 소통과 이해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다가온(ON)'은 기존 사무실이었던 센터 1층을 교류·소통공간

과 소통접견실 등으로 리모델링해 꾸며졌으며, 이곳에서는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소통공간, 자조모임, 자녀돌봄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석수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인 '다가온(ON)'이 본격 문을 열게 됨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간 실질적인 소통과 융합의 장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과의 통합과 상생에 적극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지원 확대

보호종료 2년→3년 이내로... 올해 2800여명 추가 혜택 주거지원 240호→360호 확대... 시행 지역도 3곳 증가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기존 보호종료 2년 아동까지만 제공했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단,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이라는 기준이 지난 2019년도 시범사업 대상임을 고려해 그 대상을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급대상 기준 확대 결과,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은 지난해 5000여명에서 올해 7800여명으로 2800여명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자립수당이란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물량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렸다고 밝혔다. 시행 지역 역시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에서는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및 전문 사례관리를 통한 개별 맞춤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시행 지역은 서울·부산·인천(신규)·광주·대전·충북(신규)·충남·전북·전남·경남(신규) 지역이다.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친족·관계 공무원·시설종사자·위탁부모)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

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공공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안내·신청 방법·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도 가능하다.

청년들 목소리 담아 5년마다 정책 재구성

'청년기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청년 삶의 질 향상 기대

앞으로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또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등 청년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 정책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도 가능하다.

그동안 이른바 '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를 포기한 세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정치권은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 7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한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관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했다.

아울러 정부가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이 설치된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총리), 부위원장 2명,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장, 청년 대표자 등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시·도지사가 지역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거동 불편해도 '근로가능' 판정... 기준 개선된다

신체능력 항목 배점 8점→30점 세분화 등... 객관성 제고

< 활동능력 평가 항목 개선 >

구분	현행	개선
항목	·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	· 4개 분야,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
점수	· 60점 만점 * 신체(8점), 인지(32점), 알코올(4점), 취업가능성(16점)	· 75점 만점 * 신체(30점), 인지(30점), 음주(3점), 영향요인(12점)
척도	· 단일척도 적용(0~4점)	· 항목별 다양한 척도적용(0~5점)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평

가 기준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용상 나타난 불편사항을 개선해 '근

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 평가를 시행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활동능력 평가에서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발생해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활동능력 평가항목에서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를 8점에서 30점으로 높여 인지능력 항목 비중도를 개선했다. 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4개 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 기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근로능력 평가 대상은 18~64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이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학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는 제외된다.

최종히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 안전망 강화 영향 큰 듯... 보험 가입자 수도 대폭 ↑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월(4753억원)보다 27.0%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4549억원)보다 25.4% 늘어난 금액이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37만6000명)보다 11.4%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원이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8만3000명)보다 15.7% 늘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증가했다.

연간 증가 폭으로는 2007년(51만4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해당 연도 매월 말 가입자 수의 평균치다. 작년 1~11월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1.9%였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에서는 변동 폭이 큰 일용직과 임의 가입대상인 자영업자는 제외됐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대폭 증가는 고용 여건 개선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입 요건 완화 등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올해 노인 45만명 '맞춤돌봄서비스' 받는다

기존 6개 돌봄사업 통합·개편... 중복 지원도 가능해 생활권역별로 수행기관 선정... '전국 647개' 편의성 ↑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보다 10만명 많은 45만명이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기사 지원을 넘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으로 나눠

어 제공했던 노인 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한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

당에 나가는 것이 버거워지고,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어르신에게는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 주 1회, 전화 주 2회), 복지정보 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병원동행(월 2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인구와 지역면적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1개의 서비스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전국적으로는 647개가 선정됐다. 이용자는 보다 가까운 기관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존의 가

정방문 서비스 이외에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 참여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는 업무도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으면 된다. 신규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중증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월 20시간까지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돌봄은 올해 1~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 이용권 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저소득층이 만학(晩學)에 쓸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을 위해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문화원 등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 시설에서 강좌 수강료

나 재료비·교재비로 쓸 수 있다.

올해 예산은 34억4천400만원으로, 작년보다 9억3천여만원 늘었다. 지원 대상이 8천명으로 작년(5천명)보다 3천명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4천명이 우선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65% 이하인 성인이 신청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3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득수준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권은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www.illcard.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홈페이지와 개별 휴대전화·이메일로 안내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이용권 상담센터(☎ 1600-3005)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자연당〉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해썬HACCP 인증

도내 4개 사업장 중 최초 취득... 안전한 먹거리 확인 쿠키 등 20여종 생산... 지난해 11월 2억여원 매출 달성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자연당'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썬(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취득했다. 자연당의 해썬 인증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6개소 중 제과, 제빵 사업을 하는 4개 사업장

중 도내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더욱 의미 있다. 해썬 인증은 식약처의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위생관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작년 1월 자연당에서 생산하는

단팥빵 외 37종의 제과, 제빵의 영양성분 검사 의뢰한 이후 지난 12월 9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제과 및 제빵 2종목의 인증을 취득했다. 옥천 자연당은 옥천읍 교동리 소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연면적 581㎡며, 2018년 9월 준공됐다. 근로인원은 관리자 1명, 근로장애인 14명이다. 생산하는 제과, 제빵은 단팥빵, 쿠키 등 40여종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2억3000여만 원의 매출

을 올리고 있다. 자연당에서 생산된 제과, 제빵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2017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2014년) 받았다. 박홍래 사무국장은 "이번 해썬 인증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 인증 받았다"라며 "2020년에는 단체 급식과 대량 납품 계약의 기회를 잡아 사업을 더 확장하고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직업 체험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복지재단, 2020년 사업계획 발표

복지현장 역량 강화 네트워크 지원 등 적극적 사업 펼치기로

청주복지재단은 3일 '청주형 복지정책 개발 및 복지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020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청주복지재단은 중장기 발전전략 모색을 위해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직원 워크숍을 진행해 내·외부 현황 분석, 장·단기 과제를 도출, 전략과제 등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2020년 3대 전략목표를 현장중심 복지정책 연구·개발, 복지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대외신인도 및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설정, 이에 따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복지현장을 기반으로 둔 연구사업으로 이주 및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 청주시 무장애도시 실현방안 모색 연구, 청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방안 연구 등을 진행한다. 청주시 지역사회보장체계 지표 수집과 DB를 업그레이드하고 복지정보 전문지 '청주복지포럼'을 제간으로 발행한다. 청주시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이슈별 복

지정책 과제 연구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복지현장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비전설계 지원, 복지이슈 대응역량 강화사업, 청주형 통합돌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교육 지원,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 운영, 기부자 연계 사업 등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 사업(함께 가드·Guard)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선정,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며 올해는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매뉴얼 지침 개발을 비롯해 상담·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사1004 릴레이 기부캠페인

충북도노인종합복지관, 공동모금회에 2116만원 기탁 지난해 2천만원 목표 초과달성... 노후 환경개선 등 사용

충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및 급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천사릴레이 기부캠페인"을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26일 성금 2,116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천사릴레이기부캠페인"은 충북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초 2,000만원 목표 및 1,004명 참여가 목표였으나 2,116만원, 1,046명이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뜨거운 기부 열기를 보여 주며 의미 있는 기부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캠페인의 더 큰 의미는 지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복지관이 용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기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충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116만원을 기탁했다.

충북도노인종합복지관 김준환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더욱 많은 분들

이 자발적이고 즐겁게 기부할 수 있도록 천사릴레이 기부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어린이공원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청주시-흥덕시니어클럽 쾌적 도시공원관리 MOU

청주흥덕시니어클럽(관장 박현주)과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본부장 조용진)는 9일 청주시청 제2청사 소회의실에서 "청주 지역 내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노인공익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주시에서 공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청주흥덕, 우암, 상당, 서원시니어클럽이 참석하여 협약식이 진행되었으며, 한 해 동안 시니어클럽이 공원관리사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주흥덕시니어클럽은



청주흥덕시니어클럽과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는 '청주 지역 내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도에 흥덕구 및 서원구에 위치한 34개의 어린이공원에서 환경정리, 어린이 안전지도 및 위험물 감시관리 활동을 하게 되며, 공

원 내 위험요소와 개선사항을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총 19명) 10일 충북도청을 방문하여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에게 2019청소년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청소년 정책'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도청 방문 '정책제안서' 전달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총 19명) 10일 충북

도청을 방문하여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에게 2019청소년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활동은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등의 참여 및 개최 활동을 한다. 현재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청소년정책은 기존의 충

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들과 시·군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이 제안하였으며, 더불어 청소년지도사도 함께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정책은 지난해 4월에 실시한 '청소년참여기구 연합발대식'과 8월에 실시한 '청소년정책토론회', 10월에 실시한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개발 간담회'를 통해 선정된 정책이다.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은 청소년 스타디오펠, 청소년다올택시, 2건이며, 청소년지도사가 제안한 정책은 청소년종합복지타운 건립, 청소년시설 접근 소외지역 청소년활동 터전 확보, 청소년참여권 확보로 3건이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청사어린이집원생들과 교직원들이 나눔 장터 수익금 및 교직원 기부금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청사어린이집 장터 수익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청사어린이집(원장 김미연)은 2일 지역 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 1,274,000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유성)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오송청사

어린이집 원생들이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나눔 장터' 판매 수익금 769,000원에 교직원 기부금 505,000원이 더해져 마련되었으며 성금은 도내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나눔

을 실천하고 그 기쁨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기회로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2011년 1월 설립된 오송청사 어린이집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위치 직장어린이집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천군노인복지관 2호 치매극복 선도단체

대한노인회진천군지회 이어 두 번째 지정

진천군 치매안심센터가 진천군 노인복지관(관장 김원종)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전 직원이 치매교육에 동참하고, 단체의

재능을 활용해 치매극복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단체를 말하며 군에서는 대한노인회진천군지회에 이어 진천군노인복지관이 2호로 지정됐다. 이번 치매극복 단체로 선정

된 진천군 노인복지관 직원들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치매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진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사업을 위해 군 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기억지킴이(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기

역지킴이 수혜자(7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기억력 강화 워크북활동·치매예방체조 등 다양한 치매예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기 진천군 치매안심센터장은 "지역 치매환자 예방과 함께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충북복지넷

2020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사회복지 · 보건분야

● 부양외부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시작시대가 앞당겨지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외부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외부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한다. 신규로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하여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 또 재산기준을 완화해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 또는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156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020년부터는 인상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집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며,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한다. 2020년부터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며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 '주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지원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

● 제형 당노 환자에게 당노병 관리기 지원

앞으로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당노병 관리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이다. 당노병 관리기 구입 지원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당노병 관리기 구입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노 환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전에도 왕진 가능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왕진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한의원, 치과 의원 제외)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2020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사업 첫 해인 2019년에는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920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820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아동 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분야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가 해당한다.

여성·육아·보육분야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재직여성에게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35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취업여성들에게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을 제공하고 기업 대상으로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 기업문화개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시행일 : 2020년 1월

Before

소득하위 20% 어르신(156만명)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After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

보건복지부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치매환자가 합자가족의 고령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분	종류
치매안심센터 운영	· 민간시설을 추가 운영하여 관리 가능
치매안심센터 운영	· 취약지역에 1일 휴게시간
치매안심센터 운영	· 공공요양원 5개소 지원비용을 설치
치매안심센터 운영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공동체

After

20년후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다각적 포괄적인 관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분	종류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 민간시설을 추가 설치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 취약지역에 5개소 지원비용을 설치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공동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시행일 : 2020년 1월

Before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After

20년후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
주최 6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18년부터 주 최대 6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부·유도등 단가제)

After

20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 관공서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Before

20.5월부터는 퇴직 이전부터 인센티브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함께 지원합니다.

After

인센티브 2-3모작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시행일 : 2020년 3월

Before

지금까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교과비, 학용품비 등)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액	2019년
저소득층	초·중·고	1,200천원
중·고	대학	2,000천원
대학	대학	2,000천원
대학	대학	2,000천원
대학	대학	2,000천원

After

20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과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교 지원금액에 대해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액	2020년
저소득층	초·중·고	1,300천원
중·고	대학	2,100천원
대학	대학	2,100천원
대학	대학	2,100천원
대학	대학	2,100천원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시행일 : 2020년 상반기

Before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After

20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시행일 : 2020년 1월 중

Before

지금까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분야별 신고센터에서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공공	교육
공공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민간사업장	문화예술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역사문화유산(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After

민간·공공 구분 없이 분야별 지원내용, 사전처리절차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2020년 1월부터)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피해자 상담상담	사전처리 지원단 운영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외부 신고센터 역할 강화
업무 담당자 지원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결혼이주여성은 입국전후부터 초기 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에게 전화·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독려해 센터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방문교육지도사, 사례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대기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편된다. 현재는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하거나 취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 대기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

●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31개에서 238개로 확대 운영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313명에서 1,37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 안전망팀'(9개소)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울러 '가출·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17개소)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2020년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의료비를 지원해,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의료급여 신청 후 선정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모와 자녀가 각각 연간 35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소가정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된다.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이 되었으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 청소년의 정책·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지역과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활동 창구를 다양화한다.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에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참여포털'(www.youth.go.kr/ywith)을 내년부터는 상시 운영하여 "시간만 제약없이, 청소년 누구나"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규모 워킹숍을 개최(연 2회이상)하여 참여기구 비활동 청소년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2020년에도 지속)으로 지원한다.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2.87%)을 고려하여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여 시행된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한다.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에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훈련비 지체부담률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로 개편되어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 신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녀를 포함하여 넓어짐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48천원 이었으나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으로 인상된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업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되어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책임이 부여된다. 또한,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했다.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 등이 개정되어 실시한다.

신년사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의 생활의 질 향상 위해 노력할 것”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0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올 한해는 충북의 사회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희망을 얻지 못한 상태인 데도, 서로 짝이 내리기 바쁜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입니다.

제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자격으로 지난 2년간 다양한 분들과 만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느낀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그 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나로 단합되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틀부터 깨야 합니다. 100만 사회복지사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힘을 모으지 않으면 근무환경 개선도, 임금 단결과 계획도,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도, 역량강화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는 충북도내 모든 사회복지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대동단결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근무환경 개선, 단일임금 추진, 자격제도 개선 등에 한 목소리를 댄다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는 동료가 있으면 박수를 쳐 주고, 충북 사회복지 역사를 단절시키지 말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올 한해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충북도내 사회복지 가족들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여
단일임금·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근무환경 개선 등 목소리 내야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실시,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시행,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인상, 고교무상교육 시행 등이 현 정부의 사회복지 지척이라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현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저는 숙제를 먼저 해결하고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상 정치적 이해관계와 사회복지가 맞물려 있어, 산적한 숙제 해결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계획들만 펼쳐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33년간 현장에서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숙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임금단일화 문제, 사회복지사 자격 강화문제 등도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신년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어려운 경제상황 속 복지충북 만들어 나갈 것”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쥐의 해를 맞아 164만 도민 모두 전교 대비 4% 충북경제를 이루어 부자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는 충북도정의 기본철학입니다. 올해 도 전체예산의 39.8%인 2조 297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복지예산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충북을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은 도민이 바라는 도정의 목표입니다.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정부지원형 사업에 선정되어 일부 참여기업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면서 올해 1,000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지난해 개소한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300개 우수기업과 화장품·뷰티 유망기업에는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는 충북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고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64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충북의 최대현안인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과 상호협력,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극 대응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1만 4천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같은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금년에는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회복지 예산 39.8% 투자
출산·양육 지원사업 확대
청년·노인 서비스 제공
‘장애인 먼저 충청북도’ 실현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0.977명)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실시한 산모 친화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올해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산모는 물론 임산부까지 확대 지원(18만원→48만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를 확충하고,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영유아보호용 카시트를 설치하는 등 아이를 키우는 일에 온 도민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GPS 위치표시 장비를 지원하여 제2의 조은누리양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장애인회관 차공 등 ‘장애인 먼저 충청북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9천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과 함께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복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경제자립을 돕고 노인회관 건립도 준비하겠습니다.

단양군보건의료원을 착공하고, 군 단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신년사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

“삶과 직결되는 정책 개발 위해 힘이되는 의회 구현할 것”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충북 곳곳마다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는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를 목표로 출범한 11대 충북도의회가 후반기 여정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저희 도의회는 그동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면서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겠다는 각오로 새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정치란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도의원 모두가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는 전라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 함께 뭉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충북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하나씩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 같은 의지를 담아 신년화두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정했습니다.

동심동덕은 ‘공공의 목표를 위해 다같이 힘쓰고 노력하자’는 뜻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도민 행복과 충북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조례에 담아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새해 도의회 내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합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을 계기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참다운 의회상을 실현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으로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견제와 감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힘을 합쳐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

입법활동·정책개발 강화
집행기관 엄격한 감시·견제
구체적 전략으로 지역발전 선도
충북 발전 혼신의 노력다할 것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다시 한 번 가슴깊이 새기면서, 새해에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를 위해 먼저,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조례에 담아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새해 도의회 내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합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을 계기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참다운 의회상을 실현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으로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견제와 감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힘을 합쳐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호닥터 사업 안내
법률호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안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라혜영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 전 화: 043)238-0843 / 이메일: hyra21@naver.com /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호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몇 달 전 저는 사소한 일로 연정을 하다가 지인에 대해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지인은 바로 저를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결국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5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가 벌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벌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

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만약 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한 후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위해서는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관할 지역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검사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납부나 연기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참조). 만약 위 신청에 대해 검사가 허가하면 6개월의 기한내에서 분할납부나 연기가 가능하

고, 추가로 3개월 범위 내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관할 검찰청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상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1.7.부터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시행되므로 질문자의 경우 위 개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하며,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하여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5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 시 환산 시간은 400시간이 됩니다.

복지정보 제공

[KT&G복지재단]2020년 '수리소리마소리, 청각 장애인 후원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후원물품
■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 접수: 매월 1~20일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 주
- 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 2주 이내
- 후원금 사용내역 확인: 결과보고서류 발송(1개월 이내), 인터뷰 진행(6개월 이후)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
■ 참고: http://www.ktngwelfare.org

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운 개인 및 단체
■ 신청기준: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 신청방법: 거주지역 내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개별신청불가)
* 신청기관: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단, 자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 문의: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무국(월~금 10:00~17:00, 02-6424-1551)
■ 참고: www.shinhan-hope.com

[한국국학진흥원]이야기 할머니' 모집 공고

- 내용: '이야기할머니'는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
■ 지원대상: 56~74세(1946년 1월 1일~1964년 12월 31일 출생) 대한민국 국적 여성 어르신 누구나
■ 신청기간: 2020년 1월 3일(금) ~ 2020년 2월 14일(금)
■ 신청안내: 지원서 다운로드 후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사업단'에 우편 접수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 제출서류: 지원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합격자발표: 2020년 3월 20일(금)
■ 문의: 080-751-0700
■ 참고: http://storymama.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함께 여는 자동문' 무료자 동문설치 캠페인 공고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하면 완료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문의: 1899-7081 또는 coad@coaddoor.com
■ 참고: https://www.bokji.net

[아산재단]2020년 사회복지 지원사업 공모 안내

- 지원 신청기관: 사회복지 시설 및 지자체(개인신청 불가)
■ 지원요건: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및 재산
■ 지원내용: 위기상황 극복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등
■ 지원부문 및 지원한도: - 중점지원사업(소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사업)-1억원, 20개소
-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복지현장 중심 미래선도 사업-1,500만원, 10개소
- SOS 복지지원사업(연중 상시 접수)
■ 신청기간: 2020년 1월 9일(목) ~ 2월 21일(금) / 6주간 (SOS 복지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 진행기간: 2020년 7월 ~ 2021년 6월 (1년)
■ 접수방법: asan-sos@amc.seoul.kr / 이메일 접수
■ 지원절차: 이메일 신청->1차 심사 및 현장방문->2차 심사->지원결정 및 지원금 지급->사후관리 및 결과보고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
■ 문의: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02-3010-2583
■ 참고: http://www.asanfoundation.or.kr

[밀알복지재단]2020년 장애 영유아의료지원사업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대상모집

- 모집대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6세 미만 장애영유아
* 장애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발달지연, 장애의심 등의 의사소견 있을 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의료비
■ 신청기간: 2020년 1월 1일(수) ~ 2020년 2월 29일(토)
■ 신청방법: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이메일 접수 miral9135@miral.org
* 밀알복지재단 웹사이트 '지원사업신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세한 제출서류는 사업공고문 참조
■ 진행일정: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선정결과 발표
■ 문의: 밀알복지재단 국내사업부 070-7462-9093
■ 참고: http://www.welfare.net

[굿네이버스]신한금융그룹 지정기탁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명: 신한 희망사회복지사업 [위기 가정 재기지원사업]
■ 후원처: 신한금융그룹
■ 사업지원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21년 4월 (상시신청)
■ 접수기간: - 80차: 1월 6일(월) ~ 1월 10일(금)
- 81차: 1월 13일(월) ~ 1월 17일(금)
- 82차: 1월 20일(월) ~ 1월 24일(금)
- 83차: 1월 27일(월) ~ 1월 31일(금)
■ 신청대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

자원 봉사자 모집

- ▶ 프로그램 업무보조
관리센터: 직지드림플러스 보호작업장
활동기간: 1.1~2.29
전화번호: 043-288-5174
▶ 미술교육 지도
관리센터: 늘푸른아동원
활동기간: 1.1~2.29
전화번호: 043-236-6696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1.1~2.29
전화번호: 043-216-1365
▶ 영어, 중국어 통역봉사
관리센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2.29
전화번호: 043-216-3060
▶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1~2.29
전화번호: 043-216-9811
▶ 지역아동 학습지도
관리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1~2.29
전화번호: 043-855-1090
▶ 발달장애인 적응지원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1.1~2.29
전화번호: 043-295-2505
▶ 업무보조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20.1.1~2.29
전화번호: 043-284-0103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1.1~2.29
전화번호: 043-267-4590
▶ 문화예술 공연 봉사
관리센터: 수정노인의집
활동기간: 1.1~2.29
전화번호: 043-218-3436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나눔의 인연 봉우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나눔의 인연 봉우회 봉사단(단장 김종섭, 이하 봉우회)은 지난 1월 12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우회는 2010년 9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중앙공원에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섭 단장은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재능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으며, 앞

으로도 봉사에 열심히 임해 소의 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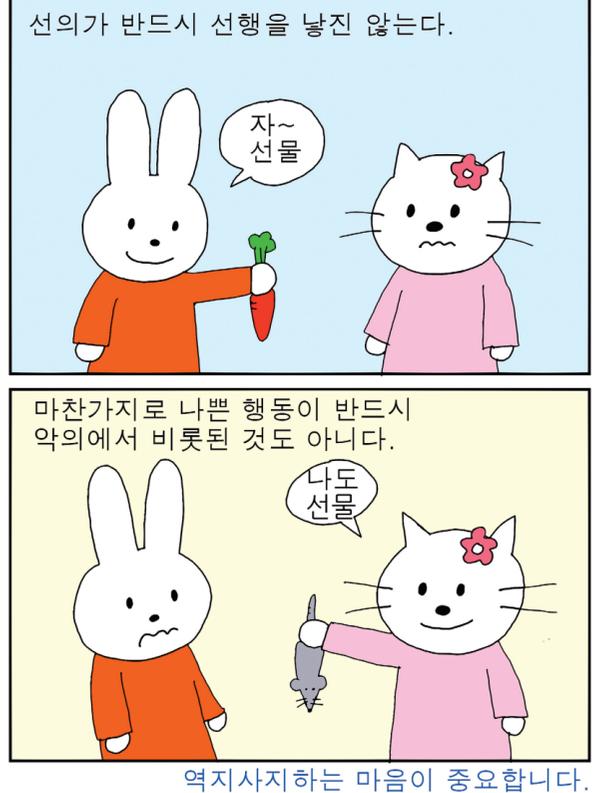


Advertisement for '자립수당' (Self-Support Allowance) with details on eligibility, application proces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large graphic with '지금 신청하세요!' (Apply Now!).

복지/만/평

선의(善意)

이창신 www.bokmani.com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